

# 한국불교 독자성 확인 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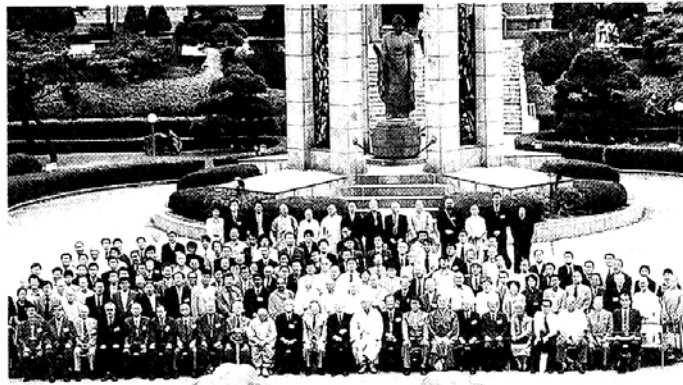
6-7일 동국대와 일본 인도학불교학회 이사장 기무라 기요타카가 공동 개최한 일 공동 인도학불교학술대회는 무엇보다 한국 불교의 독자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 한일공동 인도학불교학술대회가 남긴 것

그 동안 일본 불교학계는 한국 불교를 중국 불교의 아류로 보고 한국불교의 독자성을 부인해 왔다. 하지만 한국측 준비위원장 보광 스님은 "세계 최고 수준의 불교학을 자랑하는 일본 불교학계가 처음으로 외국 학계가 손잡고 학술대회를 연 것 자체가 한국 불교를 새롭게 보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불교, 초기불교, 대승불교 등 10개 분과로 나눠 250편의 논문이 발표된 이번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한국불교 관련 논문이 51편에 달하고, 이 중 26편이 일본 불교학계에서 활동하는 학자라는 것은 한국 불교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한다. 마에다 센가쿠(前田善學) 인도학불교학

하는 말이다. 일본에서 활동중인 오진 스님(동경대 동양문화연구소 강사)은 "근대 불교학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일본 불교학계가 학문을 위한 학문도 중요하지만 불교학은 인간을 위한 학문의 길이라는, 연구방법론적 전환기에 접어들어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고 말했다. 중범 스님은 "적극적인 참여, 철저한 책임의식 등 선진 학회 문화를 배울 수 있는 자리였다"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국제학술대회에 참여하거나 유치함으로써 국내 학자들의 학문적 관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자구제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학술대회가 공동 개최라는 의미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는 지적



동국대와 일본 인도학불교학회가 공동 개최한 일 공동 인도학불교학술대회(6-7일 동국대)에서 열렸다. 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의 기념촬영 장면.

## "대승은 출가 수행자 사상운동"

시모다 동경대 교수 새 학설



시모다 마사히로(下田正弘·사진) 동경대 조교수는 5일 가산 불교문화연구원과 동경대학 불교정년

회를 제시했다. 또 초기 대승불교는 불탑 신앙에 부정적이었으나 점차 세속화, 대중화 경향을 띠기 시작하면서 불탑이나 불상 숭배의 공덕을 설하는 대승 경전이 생겨났다고 말했다. 대승불교가 불탑 신앙을 숭배하는 재가불자들에게 의해 생겨난, 알기 위한 쉬운 불교라는 기존 학설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 불탑신앙 초기엔 부정적 세속·대중화 과정서 파생

'이와나미 불교사전' 개정판 수록 예정

회가 가진 공동 심포지엄에서 대승불교에 대해 기존의 학설을 뒤엎는 새로운 개념 정의를 내렸다.

시모다 교수는 이날 "대승불교는 기존의 부파 불교 내에서 생겨나 발전한 사상운동이었으며, 이들은 금욕적 고행의 길은 걷는 출가 수행자들이었다"는 견

해를 제시했다. 또 초기 대승불교는 불탑 신앙에 부정적이었으나 점차 세속화, 대중화 경향을 띠기 시작하면서 불탑이나 불상 숭배의 공덕을 설하는 대승 경전이 생겨났다고 말했다. 대승불교가 불탑 신앙을 숭배하는 재가불자들에게 의해 생겨난, 알기 위한 쉬운 불교라는 기존 학설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가 교육개혁에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공통 주제 강연을 한 능인선원장 지광 스님은 "강원 교육의 낙후성은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그렇다고 현대식 교육이 해내지 못하는 아름다운 전통까지 훼손시키면서 현대식 교육을 쫓아가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될 수 없다"며 "전통학원의 논각식 교육, 여법한 대중 생활 수행자로서의 습의 교육 등은 계승 발전시키는 가운데 현대의 흐름을 승가의 정신에 맞게 추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번 학술대회 조직위원장 각산 스님은 "단편적으로 현대불교학을 접한 학인이나 승가의 깊은 내용을 모르는 학자 모두에게 발전이 되는 학술대회를 키워나 가겠다"고 말했다.

## 지역불교 중요성 주목, 종합적 연구 필요 공동개최 의미 제대로 못살린 점 아쉬워

회 전 이사장은 "인접국가를 알아야 일본 불교학이 발전한다는 생각에서 한국 불교에 대한 관심이 최근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불교학에 대한 관심은 문헌학에 기초를 두는 일본 불교학계의 자기 반성에서 나왔다. 일본을 대표하는 문헌학자인 마에다 에가쿠(前田惠學) 애지학원 교수가 특별강연에서 "종파 불교가 빠진 일본 불교는 불교를 전체적으로 살피는 안목이 결여돼 있다"고 지적하고 "세계로 전개된 불교가 각 지역에서 독자적인 지역불교를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을 두고

도 있다. 학술대회 중 새로 인도학불교학회 이사장에 선출된 기무라 기요타카(木村清孝) 전 동경대 교수조차 "일본학회를 한국으로 그대로 옮겨왔다는 인상이 강해 아쉽다"고 말했다. 기무라 이사장은 "한국에서 한다는 의미를 살려 적어도 한국불교 관련 분과에서는 한국어로 된 진행표를 따로 만들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6일 열린 이사회에서는 가산불교문화연구원이 새로 가입해 한국내 가입 단체는 동국대와 원광대, 동아대, 전통불교문화연구원 등 5개로 늘어났으며, 중앙승가대와 위덕대가 가입 신청을 했다.

학술담당= 권형진 기자 jiny@buddhapia.com

스님과 재가 불교학자가 만나 질문하고 토론하는 형식의 학술모임인 제5회 전국강원연합 학술대회'가 12~13일 중앙승가대에서 열렸다. 전국 18개 강원 연합체인 전국강원연합회장 목선이 매년 한 차례 개최하는 학술 세미나를 강원 학인만이 아닌 해당 분야의 전문 학자들과 함께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도학불교학 및 인도대승이전 불교 등 4개 분과로 나눠 열린 이번 학술대회의 공동 주제는 '강원 교육의 현황과 불교의 시대적 역할'. 이례속동국대 강사 씨는 "강원 교육은 외부 현실과의 소통에 매우 소극적이다"며 "출가 수행자가 역사와 사회의 제반 문제점을 불교적 시각과 방법으로 조명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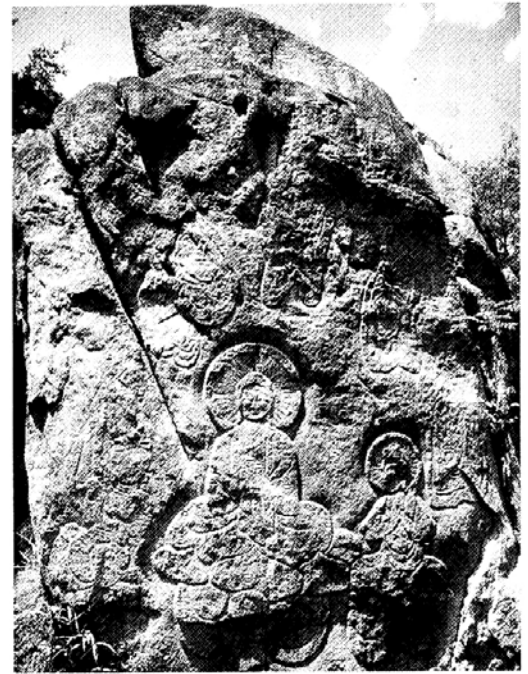
## 스님·불교학자 첫 대면 학술 모임

12~13일, 전국강원연합회 불교학술대회

"한문경전 고집 이유없다" 한글화 주장 강원 장점 지켜가면서 현대 흐름 수용

해결할 수 있으려면 일반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조현춘 교수(영북대)는 "이미 중국에서조차 사용하지 않는 고대 중국 한어로 된 경전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며 교재의 한글화를 주장했다. 그러나 태원 스님(봉녕사 강원은

"강원은 원시교단이 가지고 있던 수행과 대중화합을 위한 장치 및 제도들이 가장 충실히 시행되고 있는 곳"이라며 "불교의 전통에 입각해 불교와 사회의 관계에서 위상을 정립하기 보다 현대사회의 교육이나 문화에 발맞춰 나가기에 급급한 모양의 승



경주 남산은 63개의 계곡을 따라 절터 147곳과 118개의 불상, 96기의 탑이 산재해 있는 불교문화유산의 보고다. 사진은 보물 201호 마애조상군(磨崖彫像群) 등쪽면.

## 골마다 절터, 바위엔 불보살

불교문화유산의 보고 '경주 남산' 보급판 발간

"운 산이 절터." "신라 불교 문화의 보고." 1940년 최초로 문화재 전문가를 동원해 경주 남산의 불교유적을 조사한 일본인이 남긴 탐정의 기록이다.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이자 국가사적 311호인 경주 남산의 불교유적과 선사유적, 왕릉 등 다양한 문화유산과 민속의례, 수려한 자연경관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종합도록 <경주 남산>(민족문화)이 발간됐다. 도판편과 해설편, 2권 1질로 나온 종합도록은

신선암 마애불상이나 상선암 마애여래좌상 등에서 신상상에까지 불상을 조성했던 신라인의 불심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남산에는 불교유적만 있는 것이 아니다. 선사유적과 왕릉, 산성은 물론 고려와 조선시대 유적과 유물도 풍부하고 지금까지 남산에서 행해지는 민속의례나 수려한 자연유산도 자랑거리다. 박혁거세가 태어났다고 전하는 나정(羅井)과 신라 물락의 비운을 상징하는 포석정을 비롯해 모두 672건의 다종다양한 문화유산이 밀집해 있다. <경주 남산>은 이 모든 것을 총

유적·민속의례·수려강산 한눈에 도판편·해설편 2권 1질로 꾸며

경주문화재연구소가 올 5월 내놓은 종합 학술보고서 <경주남산>의 일반 보급판이다.

경주 남산은 우리 나라 미술사학계의 대부 고우섭이 "한국 불교의 원류를 찾고자 한다면 경주 남산에 가 보아야"고 했을 정도로 우리 나라 불교문화유산의 보고다. 경주문화재연구소가 4년여 동안 200여 차례의 현장 조사 끝에 확인한 절터는 63개 골짜기에 147곳, 아울러 118구의 불상과 96기의 석탑과 22기의 석등, 87기의 부도를 확인했다. 골짜기마다 절터요, 바위마다 불·보살이 새겨져 있던 셈이다. 바깥 위 바위에 새겨진

정리했다. 도판편에는 현재 남산에 있는 문화재뿐 아니라 박물관 등으로 옮겨진 중요 문화재와 탁본 실측 자료 등 800여 장의 사진이 실려 있다. 해설편에는 각각의 유물, 유적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사진 161장이 추가됐고, 금석문 자료, 고대문헌 자료 및 연구 논저목록, 1940년 조선총독부가 강행한 <경주 남산의 불좌>의 한글 번역본 등 남산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실었다. 특히 불상 도면은 3차원 레이저 촬영을 통해 등고선화한 실측 도면을 실어 앞으로 문화재 훼손시 복원에 활용 할 수 있도록 했다. 값 2권 1질 23만원.

한국산 가시오가피의 대명사

# 함박재 종 가시오가피

■ 세계 최초 기업농으로 성공시킨 함박재 농장!

함박재농장은 멸종위기에 처해 보호야생식물(자연환경보전법 제2조)로 지정되어 있을 만큼 희귀한 가시오가피 대량재배(10만평, 50만주)에 성공하였습니다.

-KBS, MBC뉴스에 보도 됨-

■ KSA(한국표준협회)로부터 으뜸상품으로 선정!

함박재 가시오가피는 상품력과 기술력, 그리고 QM시스템 구축도 및 활용도를 심사받아 KSA(한국표준협회)로부터 으뜸상품 제 2076호로 선정 되었습니다.

■ 충청남도 "향토지적재산"으로 선정!

함박재 가시오가피는 20여년간 가시오가피 살리기에 노력해 온 점을 인정받아 충청남도 "향토지적재산"으로 선정되었습니다.

※ 제품구입시 가시오가피와 일반오가피를 꼭 확인하세요.  
※ 100% 국내산 가시오가피를 "꼭" 확인하세요.

☐ 지금 전화주시면 가시오가피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전화상담 및 구입문의  
TEL : (02)2272-4900

# 당뇨·고혈압

## 당뇨병 혈당강하 조절제

### 국내약조 100% 生人정

▶ 혈압이 개선되며, 신체의 이상이 정상이 되며, 비만도 해소됩니다.  
▶ 100% 우리나라에서 재배되는 약초이며, 90%는 야생약초로 사용하였습니다.  
▶ 생인정은 일부는 달고 일부는 써서 배합하여 생산하였으며 일체의 첨가물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 생인정은 식품으로 먹는 약재만을 사용함으로써 부작용이 없습니다.

【복용시 나타나는 현상】

- 소변량이 증가하며 소변횟수가 늘어납니다.
- 신장기능 약화에 의한 불쾌감이 해소됩니다.
- 불면증이 없어집니다.
- 관절의 통증과 불편이 없어집니다.
- 일반적 무기력감과 피로가 없어지고 원기 회복이 됩니다.
- 거친피부가 고와집니다.
- 고혈압 증상이 개선되고, 어지러움과 부종이 없어집니다.
- 대변이 황금색으로 변하고 대소변을 보고난 후에 시원한 느낌이 나타나고 방기냄새가 없어지고 속이 편해집니다.
- 복용초기에 눈물이 나오는 느낌이 오거나, 위장이 나쁜 사람은 속이 더부룩한 느낌이 나타나지만 점차 없어집니다.
- 간혹 체중에 따라 아픈 곳에 통증이 더욱 심해지다가 점차 없어집니다.
- 위의 설명은 제형이 개선되는 현상임으로 안심하고 꾸준히 복용하시면 정력과 활력이 솟아납니다.
- 신약을 복용중인 사람은 생인정을 함께 복용하면서 점차 신약을 줄여 15일 정도 경과후 신약을 완전히 중단합니다.
- 생인정 복용시 대부분 2주 이내에 개선현상이 나타나고, 간혹 체중에 따라 늦게 나타나는 수도 있습니다.
- 복용중 개선현상이 의심되면 구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복용분과 박스포장이 5원환을 공제하고 즉시 환불해 드립니다)

1개월분 ₩150,000

1일 3회, 1회 3-4점씩 섭취(나이와 소화능력에 따라 조절)

생인정  
주문 및 상담 (054)281-0544

# 승복, 범복안내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여 항상 처음 이라는 자세로 변형없이 제품 생산·연구에 임하는 저희 업체에서는 무차별을 성기는 마음으로 정성껏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고급 재질에 세련된 디자인으로서 지정한 가격으로 스님 및 불자들에게 오시고자 합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많은 지도편발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 예뻐서복 직원일동 -

주복	1. 1차상, 바지, 포개 ₩130,000	2. 2차상 ₩110,000	3. 3차상 ₩120,000
범복	1. 1차상, 바지, 포개 ₩130,000	2. 2차상 ₩110,000	3. 3차상 ₩120,000
조끼·중복	7. 조끼, 중복 ₩50,000	7. 세트 ₩30,000	

※ 순면(부기 있는 면류) ₩130,000  
※ 비록 구입하고 세탁이 용이한 제품 ₩130,000  
※ 팔꿈치, 가슴, 비복 및 기타리류는 맞춤주문 가능합니다.

해동승복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4동 399-1  
TEL : (053)741-8131  
FAX : (053)741-8132  
H.P : (011)549-8130

지역 대리점 모집